☞ 17면에서 계속

고 아무 데나 얻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구 또 한 가지는 가게를 하면서 집을 잡혀서 해요. 그리고 또 남의 돈을 얻어다가 하구요. 집을 살 때도 자기 살던 집을 팔겠다는 계약도 안하고 집이 좋은 거 났다고 그냥 계약을 해요. 그런데 살던 집이 안 팔리면 그 계약금 또 떼이죠. 이렇게들 살림들을 해요. 내가 남의 참견을 할 거는 아니지만 어차피 도반들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잘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먼저 쓸 거는 안 쓰고 집어넣고는 급하게 되면 거선을 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깐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집도 동동거리고 살게 되요. 남의 집으로 빌리러 가지 않을 것도 빌리러 가게 되구요.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없애니깐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천도재를 하더라도 빚을 내서 가져오진 마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돈이 마련되면 해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만 가륵하게 가지고 있어도 조상님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조상들에게 누가 되게 만들죠. 그러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조상들에게 누가 되는 거죠. 만날 그걸로 인해서 단련을 받고 싸우고 그래 보세요. 부모를 위한답시고 한 상 차려주고선 그 한 상 차려준 돈 때문에 만날 싸우고 그래 보세요, 좋다고 그러나. 그걸 누가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중심을 굳건히 두고, 말하자면 자기 주장자며 주인공이에요. 수 없는 과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참 보배죠. 그 보배의 뿌리를 진짜로 믿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떤 게 닥쳐오더라도 '네가 나를 형성시켰으니깐 너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믿고 맡긴다면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껄껄 웃을 거예요. '인생살이는 이런 거지, 뭐.'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감응이 돼서 마음들이 다 한마음으로 돌봐주게 되는 거죠. 보살들이 응신이 돼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감응하게 되면 딱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냥 방방 뛰고 여기 가서 집적, 저기 가서 집적거리죠. 그러면 벌써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죠. 그걸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고 나한테 사정하기를, 주인공을 자꾸 불러도 안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는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냥 있어요, 답답해서. 세상에 그렇게 죽는 게 아까우냐. 나 내버리면 다 될 거를. 나 팽개쳐버리면, 죽는 거 사는 거 다 팽개치고 다 편안할 것을 왜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나. 어차피 지금 살다가도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옷만 벗고 가서 다시 올 것을. 배우들이 오늘 영화 했다고 내일 안합니까? 영화에서는 결혼도 몇 번씩 합디다. 하하하.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걸 보더라도 내 몸이 죽는다 산다를 팽개친다 하면 아무 것도 욕심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고 마음이 탁 가라앉고, 먹고살고 죽는 것에도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솟아 나오는 그런 게 현실로 실천이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나 조금 못살까 봐 걱정, 나 죽을까 봐 걱정, 애들 죽을까 봐 걱정, 어른 죽을까 봐 걱정, 그렇게 걱정하니까 걱정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꼬리가 꼬리를 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활하게, 그러니깐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든지 머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요량있게 잘 하고 버릴 땐 버리고, 가질 땐 갖고, 쓸 때는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네 집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도 전력을 끌어쓰는데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쓰지 덮어놓고 전력을 끌어씁니까? 밥 할 때는 밥통 하나의 전력이 나오지 더 나옵니까. 모터를 돌린다면 모터를 돌린 만큼만 전력이 나오죠. 그렇게 요량있게 써야죠. 우리 머리가 총만하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탱하고 정말 손 없는 손으로 발 없는 발로 걸을 수 있다면, 허공 길을 오고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다면, 모든 생명의 인연들을 전부 지어서 내가 이리로 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저리로 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산에 가면 산의 산천초목이 다 도와주고, 또 물에 가면 주해신이 다 도와주니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길 가도 도와주고 저길 가도 도와주고 한 발짝 떼어놓으면 응신들이 다 응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 맛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기복으로만 믿으니,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진리 속에 종교라는 것은 이름이지 이름이 진리가 아니죠. 그 진리 속에 들어 있는 종교의 이름이죠. 고행상을 걸어놓고 어떻고 어떻고, 또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사해주소서."해도 그게 사해지나요, 자기가 다 해놓은 길, 자기가 뿌려놓은 거 자기가 거둬야지 어디 가서 누구더러 해달랍니까. 누구든지 대신 밥 먹어주고 대신 똥눠주고 대신 잠자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깨닫게 해주는 사람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이 세상엔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홀로 우뚝 섰다는 건 자기 혼자 우뚝 섰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를 말한 거죠, 각자. 모두 홀로 우뚝 섰다. 깨달으면 홀로 우뚝 선 도리를 아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모두 각자 혼자 살면서 집단을 다섯 개든지 네 개든지 세 개든지 열 개든지 한데 쓰러질 까봐 모아서 매놓고 한 식구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바람마개죠, 그게. 그러다 한 사람만 쑥 빠지면 그냥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깐 홀로 나와서 홀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또 홀로 갔다가 홀로 캠핑 와서 친구들 만나서 같은 식구라고 또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느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잘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못살까, 이런 한탄하고 살지 마세요. 잘난 것도 한 찰나요, 잘사는 것도 한 찰나고 한 철이에요. 매미가 한 철 나와서 울다가 들어가듯이 그런 격이에요, 우리도.

그러니 제발 마음 편안치 않게 살지 마시고 오늘 칠석날 칠성이 즉, 불성이 밝으면 다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꿈을 잘못 꾸었으니 죽었다 이러고선 헐레벌떡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잘못돼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정히 걸린다면 "스님, 이런 꿈을 꿨는데 제 마음이 아주 불안합니다."하고 한 마디하고 마음으로 쓱 돌려놓으면 되는 거를, 또 그렇더라도 그냥 놓고,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꿈을 꾸게 한 것도 너니깐 하고선 고만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만 갖는다면 그게 훌렁 뒤집어지죠, 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처 넘길 수 없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채 넘길 수가 없겠죠. 하니깐 여러분! 얼른 잘 배우셔서 증득하세요. 그래서 요 다음 생에는 남을 도와주고 다니는 응신으로서 활약을 하세요. 절대로 밥 먹고 똥싸고 잠자는 이런 중세계의 중생이 되지 마시고요. 상세계의 선신이 되셔서 이 중세계의 여러분을 자기처럼, 과거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선신이 되셔서 지금 현재를 본다면 과거죠, 과거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건져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되나 못되나 말을 해봤습니다마는 나는 책을 봐서 말을 매끄럽고 재미있게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나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니 그거를 잘 매끄럽게 못한다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못났든 잘났든 '이것이 진실이구나' 하고 정말 여러분이 한생각을 돌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오늘은 설법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들 갑자기 모였지? 참! 재주들 용하네 정말. (대중웃음) 오늘은 법회 안 한다고 그랬는데 , 마음 아프지 않게 삽시다.

대중일동: 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8년 8월 28일 칠석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잘난 것도 한 찰나, 잘사는 것도 한 철

한탄 말고 마음 편안하게 사세요

"
'네가 나를 형성시켰으니깐' 하고
그냥 믿고 맡긴다면
죽는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어
"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경봉 큰스님, 70여 년간의 성찰과 깨달음의 일기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경봉 큰스님의 일기. 화두, 시와 어울린 아름다운 사진은 숱한 번민, 부질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준다.

스님의 일기에는 제방(諸方)의 눈푸른 납자(衲子),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법담과 감회들이 격외(格外)의 시로써 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_법정

조문객이 10만이 넘고 장례행렬이 2km나 이어진 불교계의 전설 경봉 스님의 일기는 수행자답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이 많다.
_조선일보

80여 편의 시, 20여 개의 화두, 주고받은 법담, 자연친화적인 90여 컷의 사진과 함께 빛을 발하는 명구들……
내밀하고 그윽한 목소리를 들려준다._스포츠서울



경봉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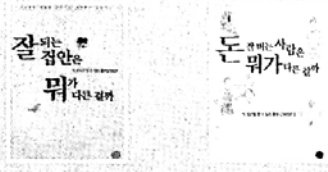
15세에 출가 평생 통도사에서 선풍(禪風)을 드날렸다. 1953년부터 극락암에 조실(祖室)로 주석하면서 이곳은 전국의 선승(禪僧)들이 동경하는 수행장소로 미국땄다. 1973년 1월 여든을 넘긴 나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고 매번 수천의 불자(佛子)들이 그의 사자후(獅子吼)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로 입적 20주년을 맞이하였다.

화분 하나, 액자 하나로 가족의 운명을바꿀 수 있다?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다른 걸까

남자의 성공을 부르는 기 인테리어
신혼을 위한 기 인테리어
질병을 물리치는 기 인테리어
아름답고 날씬해지는 기 인테리어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2,000원



돈이 모이는 집,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금전운이 좋아하는 집은 이런 집
이런 옷처럼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장식소품이 금전운을 부른다
이런 가구배치가 돈을 부른다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3,000원

TEL 953-0304 FAX 953-0306